

보도해명자료 (17. 12. 2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UAE원전 지체보상금 2조... 정부 ”공사 지연,
한국과 무관“, “UAE 교민들 ”원전, 할 말 많지만
할 수가 없다“ (17.12.25, 조선)

1. 기사내용

- ☐ UAE원전 건설이 우리 실수로 지연돼 지체 보상금을 최대 2조원 물어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
- ☐ 중소기업 중에는 대금을 못 받아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곳도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UAE원전 건설 지체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, 대금을 못 받아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중소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
 - UAE원전 1호기 준공시기 조정과 관련, UAE원자력공사는 국제기구 평가, 원자력 안전기준 충족, 발전소 직원의 운전 숙련도 강화 등을 위해 준공시기를 2018년으로 조정한다고 발표(17.5.5)한 바 있음
 - 한전에 따르면, 현재 UAE원전 건설공사, 공사비 지급 등은 모두 정상 진행중(17.12.21, 보도해명자료 기재포)에 있으며, 대금 미지급으로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
- ☐ 정부는 앞으로도 한전, UAE 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UAE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김 진 과장 (044-203-5330)
안응수 서기관 (044-203-5331)